

서울지역본부, 고용부와 건설재해예방 캠페인 전개



자아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관계자, 인근 건설현장 소장 및 안전관계자 등 모두 3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전우형 현장소장의 안전 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리플릿을 배포했다. 또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쿨토시를 나눠주기도 했다. 특히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접 근로자들에게 리플릿과 쿨토시를 전달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백현)는 지난 8월 27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성희)이 주최한 '건설업 재해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마곡 힐스테이트' 건설현장(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성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을 비롯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각 지청 산업안전과장이 참석했다. 또 이백현 서울지역본부장 등 협회 서울지역본부 관계

광주지역본부-광주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진귀수 광주시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화답했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어린이집연합회가 또 한 번 손을 잡았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재현)와 광주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진귀수)는 지난 8월 25일 '어린이집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어린이 및 교원에 대한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어린이집 건축물의 석면조사 △어린이집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김재현 협회 광주지역본부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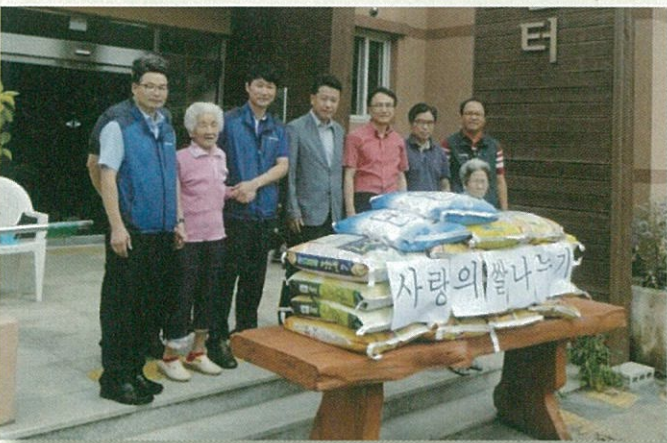
대구서부지회, 위험성평가 활성화 캠페인 실시



대구지역에서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서부지회(지회장 지영근)와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지사장 박대식)는 지난 8월 26일 군위 농공단지 입구에서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3월 13일자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위험성평가' 제도를 알리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요율 할인 등의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 참석자들은 공단에 입주한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제도와 관련된 자료와 안전포스터 등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영근 협회 대구서부지

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무재해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박대식 공단 대구서부지사장은 "이번 활동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위험성평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지회, 이웃사랑 쌀나눔 봉사활동 진행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지회장 성호경) 춘천출장소(소장 김용철)와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종필)은 지난 9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에 위치한 '봄내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쌀을 기증하는 등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수 강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김용철 협회 강원지회 춘천출장소 소장, 신원기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사 팀장을 비롯해 롯데건설, 삼성중공업, 코로글로벌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김종수 강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산업안전을 위해 합심했던 민관이 이번에는 우리 주변 이

웃을 돌보는 일에 힘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이처럼 뜻 깊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철 협회 춘천출장소장도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회, '안전수칙 지키기 운동' 전개



사망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작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예방수칙을 전파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적극 나섰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지회장 오세동)는 지난 9월 16일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서수원 이마트 옆 구운사거리에서 관내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안전수칙 지키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수원지회 직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수원산업단지 및 수원 중심가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10대 작업을 알려주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오세동 지회장은 "최근 몇 년간 관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

하고 있어 이번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캠페인뿐만 아니라 안전수칙 관련 자료 보급, 안전기술 지원 등 다각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하여 사망재해 감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10대 작업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건설기계 관련 작업, 철골설치 작업, 설비 및 배관작업, 비계 등 가설작업, 지붕작업, 가설전기 작업, 토공사, 조적·미장·방수 작업, 도장작업 등이다. 이들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충북북부지회, 우수 안전관리 사업장 시찰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노하우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지난 8월 22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북부지회(지회장 박용석)는 관내 안전관계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인 롯데칠성음료 충주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종구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을 비롯해 박용석 협회 충북북부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종구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 사업장의 안전관리 노하우와 경험을 확실하게 배워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적용해 안심일터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용석

협회 충북북부지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안전관계자들의 직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